



최근 미국의 사망률 증가와 기대여명 격차에 관한 논의

오승연 연구위원

2014~2015년 사이 미국 전체 인구의 사망률이 증가하였음.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흑인과 중남미계의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 백인 대졸미만 학력을 가진 중년세대의 사망률 증가하였고 이것이 미국 전체 사망률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음. Case and Deaton(2017)은 미국 백인 중년세대 중 대졸 미만 학력자들의 기대여명 감소는 이 계층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된 것이 축적되어 나타난 현상이라는 가설을 제시함. 미국의 사례는 소득뿐만 아니라 특정 세대나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경험해 온 이질성도 기대여명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회계층 간 기대여명¹⁾의 격차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 경제적 불평등과 기대여명의 연관성은 공적연금과 같은 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가짐
 - 예를 들어,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는 연금수급기간의 차이를 초래하여 생애연금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음

- Kitagawa & Hauser(1973)의 초기 연구를 시작으로 사회계층별 사망률과 기대여명 격차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
 - 사회경제적 계층과 사망률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utler et al.(2006)을 참조함
-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 National Academic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15)는 미국에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여명이 더 길며, 그 격차는 점점 커져왔다고 보고함
- Bosworth, Burtless and Zhang(2016)은 미국 1920년생과 1940년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최하위 10%의 기대여명 증가가 1.7세(1920년생 24.3세, 1940년생 26.0세)인 반면, 최상위 10%는 8.7세(1920년생 29.3세, 1940년생 38.0세)나 증가하였다고 보고함

1) 기대여명은 연령 x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하며, 기대수명은 0세의 기대여명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우해봉(2011)은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가 나타남을 보였고, 한정림·이항석(2014)은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는 저소득과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수익비 격차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였음
-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와는 다른 양상의 기대여명 격차가 관측되어 이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Case and Deaton(2015)은 인종에 따라 소득계층별 사망률 격차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줌
 - 비중남미계 미국 백인 중년(45~54세)의 사망률(mortality)과 이환률(morbidity)²⁾이 1999~2013년 사이에 오히려 증가했음
 - 비중남미계 백인 남성의 전체 사망률이 증가하였는데, 교육수준에 따라 대학졸업자의 사망률은 감소하였으나 대졸 미만 학력에서 증가하였음
 - 반면, 흑인과 중남미 중년의 사망률은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감소하였음
 -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흑인과 중남미계의 사망률이 감소한 반면, 백인 대졸 미만 학력자들의 사망률이 증가한 현상은 단순히 소득계층 간의 격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움
- 미국 백인 중년의 사망률 증가는 아동세대와 노인세대의 사망률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커졌음³⁾
 -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미국 전체 인구의 기대여명은 감소함⁴⁾
- Case and Deaton(2017)은 미국 백인 중년 중 대졸 미만 학력자들의 사망률 증가를 이 계층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된 것이 축적되어 나타난 현상이라는 가설을 제시함
 - 1970년대 초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전성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백인 노동자들은 기술진보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직장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용 악화를 경험해왔음
 - 이에 더해 복지제도의 후퇴로 사회경제적 지원이 악화되었고, 노동조합 역시 약화되어 임금인상이 억제된 상황에 처해왔음
 - 이 계층의 사망률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약물과 알코올 중독, 자살, 만성질환 등이었으며, 저지들은 이를 '절망이 부른 죽음'이라 함
 - 이 세대 백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부모세대가 누렸던 전성기가 자기 세대에서 무너지고 자식세대 역

2) 병에 걸리는 정도를 표시하는 통계적 지표

3) Xu et al.(2016)

4) Kochanek, Arias, and Bastian(2016)

시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을 크게 느꼈으며, 이러한 절망감이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이었던 흑인이나 중남미계와 다르게 사망률을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함

■ Lleras-Muney and Moreau(2018)은 이러한 미국 백인 중년 세대의 사망률 증가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어떤 사람이 특정 시점에 사망할 확률은 그 사람이 생애기간동안 겪어온 여러 가지 충격이나 투자들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임

■ Milligan and Schirle(2018)은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 캐나다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의 중년 세대와 미국의 백인 중년세대를 비교하였음

● 캐나다에서도 소득계층 간 기대여명 격차는 존재하나, 교육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득 계층에서 비슷한 정도의 사망률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음

● 미국에서 나타난 사망률 감소 현상은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음⁵⁾

■ 미국의 사례는 소득뿐만 아니라 특정 세대나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경험해 온 이질성도 기대여명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제까지 사망률의 변화는 영·유아 사망률 감소,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 주로 모든 인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환경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왔음

● 사회계층 간 기대여명의 격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 간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 간 차이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우해봉(2011), 「소득과 기대여명」, 『보건사회연구』, 31(2)

한정림·이항석(2014),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차이를 반영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응용 통계연구』, 27(2)

Bosworth, Burtless and Zhang(2016), *Later Retirement, Inequality in Old Age, and the Growing*

5) Case and Deaton(2015, 2017)는 선진국들의 소득계층별 사망률 추이에서 미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Gap in Longevity Between Rich and Poor*, Brookings Institute
- Case, Anne and Angus Deaton (2017), "Mortality and morbidity in the 21st centur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 _____ (2015), "Rising morbidity and mortality in midlife among white non-Hispanic Americans in the 21st centur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12(49), pp. 15078~15083
- Cutler, David M., Angus Deaton, and Adriana Lleras-Muney(2006), "The determinants of mort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3), pp. 97~120
- Kitagawa, E. M., Hauser, P. M.(1973), *Differential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A Study in Socioeconomic Epidemi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ochanek, Kenneth D., Elizabeth Arias, and Brigham A. Bastian(2016). "The Effect of Changes in Selected Age-Specific Causes of Death on Non-Hispanic White Life Expectancy between 2000 and 2014", Data Brief no. 250, Hyattsville, Md.: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 Lleras-Muney, Adriana and Flavien Moreau(2018), "A unified law of mortality: Implications for the long-run effects of early conditions", Technical Report, UCLA
- Milligan, Kevin and Tammy Schirle(2018), "The evolution of longevity: evidence from Canada", NBER Working Paper, No. 24929
- National Academic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15), "The growing gap in life expectancy by income: Implications for federal programs and policy responses", Technical Report, National Academic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Washington DC
- Xu, Jiaquan, Sherry L. Murphy, Kenneth D. Kochanek, and Elizabeth Arias(2016).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2015", Data Brief no. 267, Hyattsville, Md.: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